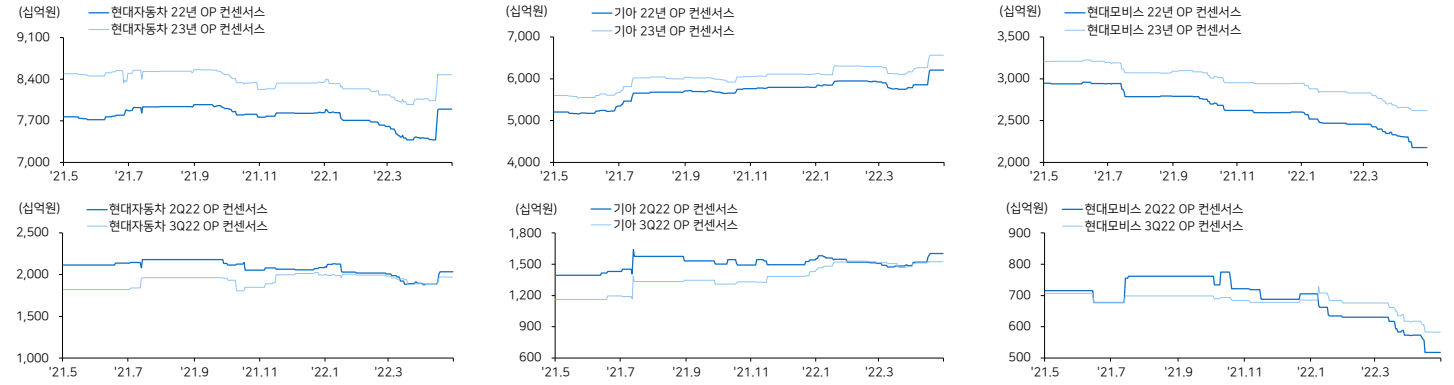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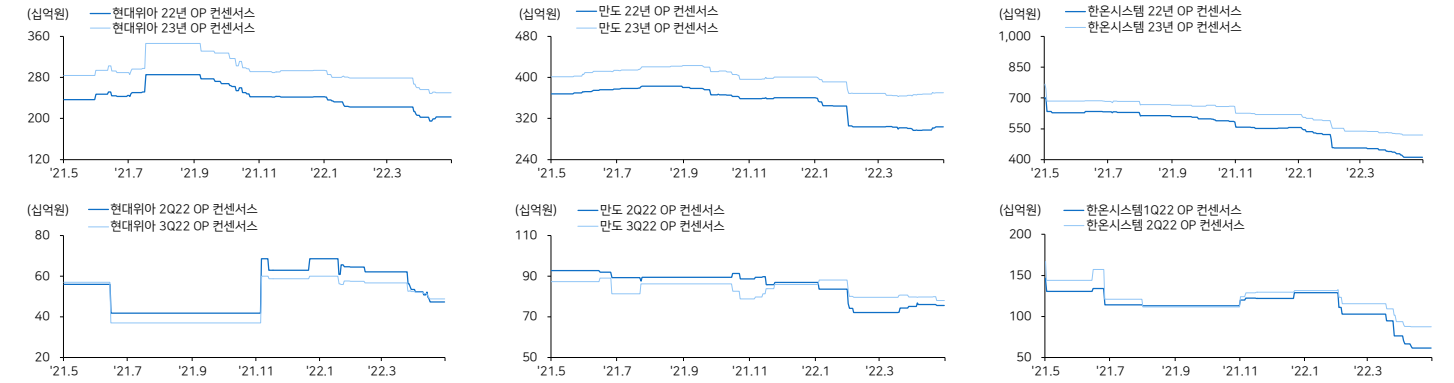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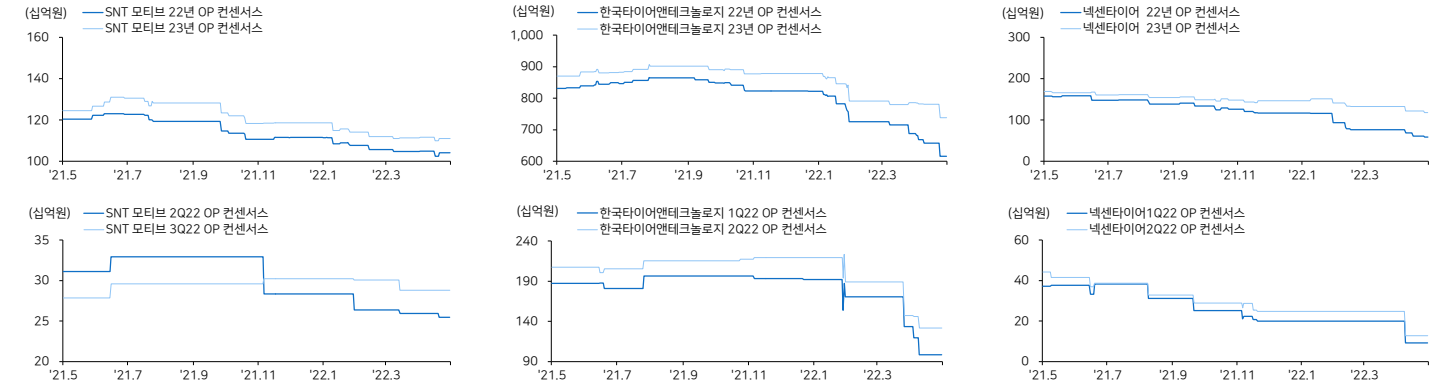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N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하반기 글로벌 후 할기 되찾는다...韓 배터리도 '활짝' (데일리안)

반도체 공급난이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완성차업체가 대기물량을 중심으로 생산량 확대에 '울인'할 것으로 예상됨. 배터리 합작공장 가동도 임박한 만큼 전기차 생산도 탄력받을 전망.
<https://bit.ly/3aaGA9e>

전기차 부품 생산 가능한 기업은 2.3%뿐 (한국경제)

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9300여 개 부품사 중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의 2.3%(213개)에 불과. 비(非)현대차그룹 계열 부품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378억원 감소하는 등,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줄어들고 있음.
<https://bit.ly/3wWruMC>

Tesla Shanghai plant restores weekly output to 70% of pre-lockdown level (Reuters)

테슬라 가가 상하이의 주간 생산량이 COVID19 이전 수준의 약 70%로 복구했다고 알려졌다. 관계자는 지난 주 중반에 2고대 근무를 시작한 이후, 이번 주에 생산량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.
<https://reut.rs/3LUyWqA>

The latest numbers on the microchip shortage: 167,000 more cuts (Automotive News)

글로벌 차량용반도체 공급부족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으나,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계획을 위해서는 점점 생산차질 규모가 줄어들어야 함. 그러나 지난주 167,000대 이상의 차량이 글로벌 생산계획에서 차질되는 등 감소세의 기미는 보이지 않음.
<https://bit.ly/3z8jH0X>

"니켈·코발트·리튬 강세 끝났다" 전망에 전기차·배터리 희색 (머니투데이)

30일 골드만삭스는 "니켈·코발트·리튬 등 3대 핵심 배터리 금속 가격이 향후 2년 동안 하락할 것"이라며 "관련 금속의 강세가 현재 일단락됐다"고 분석. 수요 급증으로 올랐던 가격이 공급과잉을 불러와 '23년까지는 안정적인 전망.
<https://bit.ly/3M1qQML>

Hyundai, Kia are pouring on the hybrids (Automotive News)

현대차 글로벌 COO 호세 무뇨스는 "하이브리드 구매 습관을 전동화를 향한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. 많은 고객들이 여전히 BEV로의 과감한 전환을 꺼리며, HEV/PHEV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중"이라고 언급.
<https://bit.ly/3wW4gGg>

XPeng signs deal to build NeoPark equivalent in Zhaoqing (CNEV Post)

1년 전 중국 전기차 업체 NIO가 안후이성과 100만대 규모의 완성차 산업단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, Xpeng은 광둥성의 Zhaoqing High-Tech Zone 관리 위원회와 비슷한 규모의 산업단지 건설 계약을 체결함.
<https://bit.ly/3PO40Xt>

Li Auto to build SiC chip R&D and production base in Suzhou (CNEV Post)

중국 완성차 업체 Li Auto와 반도체 제조업체 Sanan Optoelectronics는 쑤저우 지역에 합작사를 설립, 6월 공장을 건설하고 연내 완공, SiC 칩 모듈의 개발과 생산을 추진할 계획. 2024년에 양산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.
<https://bit.ly/3Y1nh5W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